

말해주세요
(1분1초)
기획서

영사운드

‘말해주세요’, 제작 전략

1. 현대적 감성의 세련된 트로트

- 전통 트로트의 특유의 리듬과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미니멀한 편곡, 감정 절제, 감성적인 멜로디 결합.
→ 중장년층에 익숙하면서도, 2030세대에게는 세련되고 친숙하게 들리도록.
 - ☐ "촌스럽지 않은 트로트"
 - ☐ "뉴트로 감성에 최적화"

2. 고백 테마 + 대화체 가사

- ‘막차 시간’, ‘말해주세요’ 등의 일상적 표현이 대화처럼 이어짐
→ 공감성 높은 내러티브, 숏폼 콘텐츠에 최적화된 짧은 인상적인 문장으로 제작
 - ☐ 내뱉는 고백 = 현대인의 연애 방식을 반영하여 공감대 형성
 - ☐ 노래 자체가 한 편의 짧은 드라마처럼 느껴지도록

3. 여성 보컬 특화 스타일

- 후렴이 꽃히면서 부드러운 고음과 서정성이 강조됨
→ 여성 솔로 보컬의 매력을 어필 할 수 있도록 제작
- 방송/공연/경연 등에서도 과장 없이 분위기로 승부할 수 있는 곡

‘말해주세요’, 마케팅 Target

구분	상세 타겟
연령	20대 후반 ~ 40대 중반
성별	여성 중심, 남성 서브
라이프스타일	반복되는 삶에 지쳐 새로움을 찾는 열정을 가진, 감성적이며 사랑의 설렘과 애매한 분위기를 공감할 수 있는 2040
SNS 이용	쇼츠 콘텐츠 및 릴스를 자주 시청하며, 감성적인 상황극/میم 콘텐츠 소비 성향 있음

키워드 요약

#일분일초가모잘라이야 #막차고백송 #달빛고백 #트로트감성
#술자리쌈 #아는척금지송 #연애심리트로트 #12시전고백
#트로트릴스 #고백챌린지

무대 공연용 오프닝 멘트

여러분, 누구나 가슴속에 하지 못한 말 하나쯤은 있으시죠.
제가 그 말을 대신해 드릴게요. 말해주세요 들려드립니다.

‘말해주세요’ 가사

오늘밤 아무리 늦어도 열두시에는 들어가 봐야 한답니다
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분위기 다운되니까
우리 술잔 사이에 달빛이 비춰질 때 쯤
흘러가던 시간도 멈춰 버린 것처럼

일분일초가 모잘 라이야 아쉽다는 말이야 (Hook)

내 마음을 알고 있나요, 아는 척 하는거 말고요
일분일초가 모잘 라이야 헛갈린단 말이야
막차시간 지나기 전에 말해주세요

자꾸만 얼굴이 빨개져 보이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
알쏭달쏭 하지 마세요 난 오늘 솔직하니까
나도 가끔은 헛갈려 우리가 같은 맘인데
오늘밤엔 듣고 싶어 너의 진짜 마음을

일분일초가 모잘 라이야 아쉽다는 말이야
내 마음을 알고 있나요, 아는 척 하는거 말고요
일분일초가 모잘 라이야 헛갈린단 말이야
막차시간 지나기 전에 말해주세요

막차 이제 떠나갑니다 말해주세요

‘말해주세요’ 핵심 마케팅 포인트

① 가사 공감도 극대화

- 이제는 여성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시대, 이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.
- ‘일분일초가 모잘라’, ‘막차시간 지나기 전에 말해주세요’ 등 공감 할 수 있는 상황 대사형 가사.
- 썸, 고백 직전, 애매한 관계 등 현대적 연애심리를 터치하는 테마.
- ‘아는 척 하지 마세요’ 등 여성 청자의 감정선을 대변하는 가사 활용.

→ 마케팅 전략: 가사 문구를 텍스트 영상/릴스/자막 기반
쇼츠 콘텐츠로 편집하여 SNS 확산.

② 여성 아티스트의 매력 어필에 최적화된 컨셉

- 끼 있는 감성과 동시에 진심을 드러내는 여성 캐릭터의 서사.
- 섬세한 표정 연기와 감정선을 살린 영상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이 작용 가능.

④ ‘시간’과 ‘진심’이라는 보편적 키워드 활용

- ‘시간이 부족하다’, ‘말해줘야 할 타이밍’이라는 보편적 상황은 모든 연령대에서 통함.
- "사랑에 있어 타이밍"이라는 메시지로 콘텐츠 시리즈화 및 커플 대상 릴레이 참여 유도.

→ 마케팅 전략: ‘진짜 말해줘야 할 타이밍은?’ 시리즈 영상
남녀 커플 인터뷰 릴스
밤 12시 전후, 술자리 고백 상황 밈 등

About '영사운드'

- 김영선 대표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모인 트로트 전문 음원 제작팀 입니다.
-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매 했을 때 히트 할 수 있는 음악, 음원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음악을 제공 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
- 정상급 가수분들께 어울리도록 최고의 음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
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

※ 대표 Producer

김영선 : 010-8955-1395

※ Director

박세종 : 010-4741-0379